

##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

徐 柱 實

(釜山大 法學科 教授)

### I

大學의 內實化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政府는 大學의 學期制를 내년부터 改編하는 勇斷을 내렸다. 教育은 百年大計라 하거늘 어찌 몇 년 동안에 教育政策이 이렇게도 자주 變更되느냐는 問題提起도 있겠지만 치열한 國際競爭속에서, 社會의 各分野가 놀랄 만큼 急變하고 運營의 合理化, 技術의 向上, 나아가 國際競爭力的 提高를 위한 온갖 노력이 傾注되고 있는 지금, 그러한 노력의 原動力인 人力供給의 場으로서 大學은 놀라운게도 解放後의 大學風土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世界 속의 大學의 位置를 確保하려는 몸부림보다 40年의 停滯속에 安住하려는 듯이 韓國的 大學風土에 便乘하려는 듯한 印象이 오히려 짙다 하겠다.

그런 觀點에서 우리 나라 大學이 안고 있는 問題點을 살펴볼 때 다른 영역의 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克服·脫皮하는 에지와 勇斷이 있어야 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 II

學期制 改編案을 보면, 學期間 授業時間의 不

均衡을 조정하고 夏季放學을 연장하는 改編을 시도하고 있다. 즉 현재 第1學期가 20주인 것을 16주로 단축하고 夏季放學 7주를 12주로 연장하고, 第2學期는 16주 그대로 두고 冬季放學을 9주에서 8주로 단축한 것이 外見의인 改編案이다. 이러한 學期改編의 目的은 先進國 水準의 效率의인 學期運營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그 必要性에 대하여는 현행의 학기별 授業履修期間의 不均衡이 격심하고, 行非로 인한 授業缺損이過多하며, 夏季放學의 短期間으로 인한 活用的 適切性 缺如, 外國學期와의 連繫困難, 實質的인 授業終了와 卒業期間의 空白補完 등을 들고 있다.

現行 學期制 運用에 있어서 특히 不合理하다고 생각해 온 것은 무엇보다 1學期와 2學期 수업기간의 不均衡이었고, 外國 大學에 비하여 夏季放學이 짧아 外國 大學처럼 教授나 學生이 夏季放學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으므로 文教當局이 제시한 目的과 必要性에는 수긍이 간다.

지금까지의 經驗에 비추어 第1學期の 授業은 너무 長期間이었다. 학기의 후반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教授나 學生들이 긴 학기에 지친 상태가 되어 人間의 계속적인 集中力의 限界를 느껴 왔다. 그래서 學期の 중간쯤이면 各種行事나 祝祭로써 한숨 돌리는 現象이 惰性的으로 나타났고, 한편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5월이 되면 各 大學은 競爭의으로 各종의

祝祭를 數日間 벌이고, 授業이 예정된 날짜를 그런 행사로 빠지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1學期와 2學期의 不均衡을 조정하고 1學期에도 集中力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환영해 마지 않는다. 그런데 긴 夏季放學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外國처럼 그 放學을 教授나 學生들이 活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약 3個月을 計劃性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教授들은 研究, 國內外的 學會活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學生들도 미진한 教科의 補充, 教養을 위한 自習, 海外研修, 副業活動, summer school에의 參與 등을 마음놓고 계획할 수 있겠다. 外國 大學과의 連繫에도 특히 夏季放學 동안 研修나 summer school, 各種學會에의 參加 등이 아무런 支障이나 不便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改編된 學期制에 따른 教科課程 運營 문제는 오히려 그 內實化를 위한 前提가 이루어졌다고 먼저 지적해 두고 싶다. 앞서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의 經驗에 비추어 人間の 集中力의 限界를 넘는 긴 學期가 조정되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으로 短縮되었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오히려 勉學의 量과 質은 결코 後退 아닌 前進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1學期의 4주간 단축은 授業의 內實化로써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現今과 같은 授業으로 一貫한다면 4주간의 損失밖에 남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歷史가 日淺한 우리 나라 大學은 오랜 歷史를 가진 先進國 大學의 水準과는 많은 거리를 느끼면서, 學習量에 있어서도 훨씬 뒤진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우리 現實로 肯定하고 있다. 모든 分野에서 國際競爭力의 提高를 위해 渾身의 努力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데도 大學만은 列外的 傍觀地帶로 남겨 둘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 나라의 大學의 水準이 그 나라의 文化水準을 저울질한다면, 모든 分野에 앞서 國際競爭力 있는 大學水準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文教政策·大學·學生의 三位一體의 온갖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現實은 先進國 學生들이 몇 배 더 공부하

고 한 학기 동안 수업한 質과 量도 우리보다 몇 배나 되니 文化韓國의 將來를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現狀維持 아닌 現狀克服을 위한 온갖 아이디어와 計劃과 努力을 呼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競爭力 있는 大學이 되게끔 競爭하는 大學生活을 유도하는 制度의인 裝置를 두게 되는 것은 너무나 當爲의인 흐름이다. 卒業定員制, 教授方法의 改善, 거기에 學期制의 調整 등은 그런 努力을 위한 一連의 政策이라 보고 싶다.

### Ⅲ

學期制의 改編에 따르는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 문제는 一見 4주간 短縮된 1學期를 시간상 損失 없이 어떻게 內實 있는 運營을 해 가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先進國 大學에 比肩할 수 있도록 競爭力 있는 大學을 만들기 위하여는 지금보다 몇 배 공부할 수 있는 教育與件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해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教育學 專攻이 아니라는 점인데 그동안의 教授方法 改善을 위한 多少의 研究와 그 適用의 實際의 經驗에 비추어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教育課程 運營에 있어서 그 內實化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一方的인 注入式 講義方法을 止揚하고, 學生들이 能動的으로 參與하는 教授方法으로 바꾸는 것이 절대로 요청된다 하겠다.

종래 우리 나라 大學은 대체로 學問의 傳授라는 관점에서 教授들이 專門分野에 관한 해박한 知識을 一方的으로 學生들에게 전달하는 注入式 講義方法에 의존하고 있었다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이 講義方法은 知識의 일방적인 傳達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短點은 學生들이 그 講義에 어느 정도 따라오며, 理解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어디까지나 學生들의 自律에 맡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講義方法은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진

대 학생들이 아무런 受講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노오트만 들고 가서 강의실에 앉아 듣기만 하면 된다는 너무나 安逸한 受講姿勢를 갖게 만들었고, 평소에 공부하지 않고 강의실에도 들어가지 않아도 노오트만 빌려 整理해 두고 中間試驗이나 期末試驗 때에만 試驗을 위한 공부만 하면 되고, 그렇게 試驗만 치면 學點은 거의 取得하게 되고, 그렇게 學點만 취득하면 된다는 大學生活을 낳게 하였다.

그러하여 高校時節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가고 싶은 大學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때까지는 종래 課外공부의 극성까지 부리면서 晝夜로 공부하다가 일단 大學에 入學하기만 하면 어떠한 卒業은 되는 것이니까 마음껏 놀고 젊음과 낭만을 謳歌하는 것이 정상적인 大學生活이라는 그릇된 大學觀마저 蔓延하게 된 것이다. 통키타·미팅·앤티·씨어클 등으로 象徴되는 大學의 낭만만이 大學生活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風潮는 앞서 지적한 競争속의 韓國 大學을 생각할 때, 정말 어이없는 現象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모든 大學생이 그러한 大學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一般의인 傾向이 그렇다는 것이다. 이러한 大學生活의 惰性を 벗어나게 하고 大學生도 高校時節 이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認識시키고 또 그런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卒業定員制를 채택한 것으로 안다.

一方의인 注入式 講義方法이 그러한 問題點을 안고 있으므로 學期制 改編 이후에도 그러한 講義方法에만 依存하게 된다면 분명히 4주간의 學期短縮은 그만큼 教科運營의 損失밖에 낳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學期短縮을 하면서도 現行學期制에 못지 않는 內實化를 기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강의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강의방법은 실령 學問의 傳授는 그런대로 되겠지만 학생들이 이를 충분히 消化하고 創意力を 啓發할 수 있는 기회는 강의실에서 거의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契機를 促求하기 위한 誘導나 刺戟도 거의 考慮되고 있지 않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教授는 알고 있는 知識을 나름대로 전하고 大學生들이니까 알아서 공부하되 공부하고 안하고는 학생의 전적인 自

律에 맡기고 그것마저 教授가 책임지고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內實化를 위하여는 學生들이 종래의 너무나 受動的이며 消極的인 受講내지 勉學의 姿勢로부터 能動的이며 積極的으로 參與하게 하는, 말하자면 공부를 하도록 하는 教授方法의 開發 내지 改善이 시급하다. 이 문제는 이미 근래에 와서 研究되고 실제로 適用하고 있는 大學들이 있으므로 그런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IV

釜山大學校에서는 2년전부터 教授方法委員會를 구성하여 새 教授方法을 다자도로 開發하여 82年 1學期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오다가 금년 1學期부터는 全教授가 일제히 적용하였더니 學生들의 勉學姿勢에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豫習 없이 교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예습 요청과 수시로 부과되는 課題, Quiz 시험, 교실에서의 質問·應答 中心의 授業 등이 圖書館을 언제나 超滿員으로 만들었고, 休息時間만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책을 보는 현상을 수시로 보게 되어 정말 공부하는 大學生の 眞面目을 본 것 같아 너무나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면 어떤 方法을 開發하여 教授하게 되었는가를 다음에서 紹介하고자 한다. 教科運營에 있어서 教授는 一方의인 知識의 傳授자가 아니라 guider나 facilitator의 立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發見學習(discovering learning)을 하게끔 授業에 대비하도록 하여 교실에서 積極的으로 參與하면서 知識을 소화하고 創意力を 개발할 수 있는 與件을 조성하도록 한다는 前提 아래 教授와 學生이 교실에서 하여야 할 여러 가지 方法을 開發해 보았다.

첫째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能動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한 학기 동안의 教授할 內容과 範圍 및 課題 그리고 教授方法 및 評價方法 등 教授計劃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事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둘째는 教授方法인데, 教授는 案内者나 助力者의 立場에서 학생들이 能動的인 學習을 돕도

목 努力하는 것을 前提하고 구체적인 方法에 대하여는 共通的인 方法과 大單位·小單位教室의 경우를 구별하여 각 教科目的 特性에 따라 選別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보면,

(1) 知識의 傳達보다 問題提起를 통하여 自律的 思考能力을 向上시키고 創意的이고 能動的인 學習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학생들이 能動的으로 質問·應答·發表할 기회를 충분히 배려하고 教授는 적당한 때에 補充·整理해 준다

(3) 敎科進行에 있어서 主要內容을 無作爲로 抽出한 학생들로 하여금 2~3분간씩 應答하도록 하고 성실하게 답한 학생에게는 點數를 加算해 준다.

(4) 豫習程度를 點檢하기 위하여 수시로 授業前에 예고 없이 5~10분간 quiz 시험을 보고 成績에 反映한다.

(5) quiz 시험에서 다룬 문제를 正規시험에서 다루어 學習을 자극한다.

(6) 大單位 教室에서는 quiz 문제를 두 종류로 작성하여 얇은 줄별로 엇갈리게 배부하여 시험의 公正을 도모한다.

(7) 敎科內容에 있어서의 質問事項이나 主要問題點을 事前에 학생들로 하여금 提出하도록 하고, 교수는 이를 정리하여 討論을 유도한다. 質問事項은 먼저 학생들이 답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교수는 補充說明하고, 마지막으로 要約·結論을 내린다.

(8) 課題物을 두 달에 한 번 정도 제출케 하는데, 大單位 教室에서는 group 별로(5명 내지 10명)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은 임의로 지정된 학생에게 質問 또는 發表하게 한다. 課題物은 添削하고 hint를 併記하여 돌려준다. 과중한 課題物을 막기 위하여 中位의 學生이 1學點當 1주 2시간 정도 努力하면 할 수 있는 量을 부과한다.

(9) 學期中 任意試驗을 여러 번 치루어(7회 정도) 成績이 좋은 것(5가지 정도)만 평균하여 成績에 反映한다.

(10) 다음 時間에 다룰 內容과 範圍를 미리 알려 주고, 당일 다룬 敎科內容에서 미진한 부분은 質問紙를 받아 다음 時間에 다루기로 한다.

(11) 市中에서 購入할 수 없는 論文을 參考資料나 敎材로 쓸 경우에는 몇 부로 複寫하여 課題圖書室에 備置해 둔다. 이들 資料는 時間制로 그 圖書室內에서만 대출된다.

(12) 大單位 教室에서의 出席點檢은 無作爲로 10명 내지 20명만 呼名하여 缺席者에게는 2~4회 缺席으로 간주한다. 이는 첫 시간에 반드시 학생들과 약속을 해야 한다.

(13) 成績評價는 여러 종류의 試驗, 課題物, 敎室에서의 學習活動과 出席點數 등을 종합하는 多元的인 評價方法을 채택한다. 이는 客觀的인 評價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評價를 學習의 手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評價基準으로서 中間·期末 시험은 60%, quiz, 課題物, 質疑, 發表, 出席 등을 40%로 하고 각각 10%를 加減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이는 教授計劃表에 明示하도록 한다.

以上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특히 大單位 教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거기에는 철저한 豫習의 點檢을 통하여 成績에 反映하고, 出席率을 완벽할 정도로 높임으로써 學習 분위기를 造成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미 例示한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특히 無作爲 出席點檢 (6)과 (12)번을 고려한 quiz, (8)번을 고려한 group report, (7)번을 고려한 無作爲 質問方法 등을 活用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小單位의 경우는 앞에 제시한 모든 방법을 충분히 活用하여 質問·應答중심의 授業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教授方法에 의한 授業은 教授나 學生에게 갑작스런 큰 負擔을 느끼게 하므로 그 趣旨와 方法에 대한 意見交換을 全教授와, 그리고 320명의 學生代表와 수차례에 걸쳐 나는 다음 처음에는 教授方法委員會의 委員만이, 그 다음에는 教授 一人當 한 科目씩 이를 적용한 後에 그 反應을 분석하여 補充하고서 全教授 全科目에 걸쳐 全面的으로 實施하였다.

지난 6月末에 教授들의 새 방법에 의한 授業의 實態를 양케이트로 분석해 본 결과, 응답 교수 466명 중 95%가 이 방법에 따라 授業하였고(여기에는 藝大 등이 方法 適用이 곤란한 科目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quiz 방법은 85%, report 제출은 72.7%

가, 討論方法은 43.1%가, 課題物은 46.6%, 發表는 50% 등 科目에 따라 教授 나름대로 세 방법을 택하여 適用해 보았는데, 95%가 全體的으로 이를 活用하고 있다는 結果는 全面實施의 첫 學期로서는 매우 成功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생들의 反應도, “훨씬 공부가 많이 되었다”, “아주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意識變化가 필요하다”, “科目의 性格에 따라 적절한 調整이 필요하다”, “大單位 教室의 경우 運用의 妙가 있어야 한다” 등이어서 鼓舞的이었다.

이상에서 釜山大의 경험에 비추어 본 바와 같이, 1學期의 短縮된 학기에 授業의 質과 量을 종래와 같이 또는 그 이상으로 確保할 수 있는 敎科運營의 內質化는 무엇보다 敎授方法의 改善에 있다 하겠다. 또 그런 방법은 勉學분위기의 造成만이 아니라 競爭力 있는 大學으로의 발돋움하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確信하고 싶다.

## V

끝으로, 1學期의 단축에 따라 연장된 여름放

學의 活用に 관하여 言及해 두려고 한다. 延長된 여름 放學은 敎授나 學生이 曠所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자기의 계획대로 活用할 수 있는 좋은 機會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外國大學의 summer school, 각종의 學會活動 및 研修 등의 時期와 일치하여 大學의 正常的인 學事日程에 支障 없이 참가할 수 있게 되고, 國內에 있어서도 교수들의 計劃的인 研究活動의 좋은 機會이고 학생들도 敎養을 위한 時間, 미진한 學業의 計劃的인 補完, 副業活動을 위한 충분한 時間 등의 利點이 있고, summer school을 開講하여 補完的인 敎育이 가능한 시기로 活用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創意的으로 自己計劃 아래 活用하느냐가 문제될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學期制改編은 꼭 鼓舞的인 措置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敎育課程 運營은 敎授方法의 改善으로 충분히 그 內質化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런 內質 있는 敎育을 통하여 大學의 質的 向上과 國際競爭力을 갖춘 大學으로의 雄飛를 기대해 보고 싶다. \*